

이주민 한국어교육 담론의 차등적 재현 구조 분석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언론 담론 비교를 중심으로-

목은영 · 박시균*
(국립군산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한국어교육의 사회통합 기능과 언론담론 분석
 - 2.2.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적 위치와 한국어교육
 - 2.3. 언론 담론과 차등적 포섭의 분석틀
3. 연구방법
 - 3.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 3.2. 연구설계
 - 3.3. 분석 방법
4. 연구 결과
 - 4.1. 전체 보도량 변화와 집단별 언론 가시성
 - 4.2. 관계도 분석 결과: 시기별 주요 공출현어의 구성 변화
 - 4.3. 연관어 분석 결과: 시기별 의미 구성의 변화
 - 4.4. 한국어교육 담론의 차등적 재현 구조
5. 결론

* 제1저자: 목은영, 교신저자: 박시균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담론이 언론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에 내재한 차등적 포섭 구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BigKinds)에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 3,671건을 수집하여 키워드 추이 분석, 네트워크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담론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 등을 중심으로 가족과 정착의 담론 속에서 주로 재현되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담론은 외국인 노동, 고용허가제, 산업현장 등을 중심으로 노동과 직무수행의 담론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육 담론이 이주민 집단별로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빅카인즈, 차등적포섭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은 더 이상 일시적 체류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이주민 정책 역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중심에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법무부 2024).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한국어 능력은 노동시장 참여와 공공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 역시 한국어교육을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선정 2018: 43; 법무부 2024).

주요 정책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역시 지속적으로 한국

어교육 지원을 받아 왔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확대되어 왔으며(여성가족부 202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EPS)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중심으로 입국 전·후 한국어교육 체계가 구축·운영되어 왔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그러나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정책과 교육 현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정책 사업은 서로 다른 내용과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어 왔으며(여성가족부 2024),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EPSTOPIK 준비와 산업현장 적응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및 자가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사업장 의사소통, 직무 수행, 산업안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이미혜 2008: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이와 같은 정책 운영과 교육 실천의 흐름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내용과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는가를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이해되는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게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집단에게는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이주민을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하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위치화하는 차등적 포섭(different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차등적 포섭은 이주민을 사회 밖으로 완전히 배제하거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로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정책적 위치, 권리 및 지원의 범위를 부여하면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Mezzadra & Neilson, 2013:159-166). 본 연구에서는 차등적 포섭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변인이나 분석지표

가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언론 담론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부여받는 양상을 해석하기 위한 관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주로 정책 분석,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방안, 학습자 요구 분석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결혼이민자 대상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 사회통합, 생활 적응 및 교수·학습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연구는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사업장 의사소통,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정하라, 구영산 2023; 박진호, 이준호, 임형욱 2023).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언론 담론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 담론을 비교하여 사회적 의미 부여 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특히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부여와 재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언론은 특정 사회문제와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한다(McCombs & Shaw 1972:177). 또한 특정 현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의미화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해석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Entman 1993:52), 특정 집단과 사회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기도 한다(Hall 1997:15-17). 따라서 언론에 나타난 한국어교육 관련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언론에서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맥락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두 집단에 어떠한 역할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 보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 관련 보도량 변화와 핵심 키워드 및 의미망 구조를 비교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 담론이 각 집단에 어떠한 사회

적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언론 담론에서 서로 다르게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차등적 포섭의 관점에서 어떠한 담론적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언론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어떠한 핵심 키워드와 의미망 구조를 형성하는가?

연구문제 3.

언론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 차이는 차등적 포섭의 관점에서 어떠한 담론적 의미를 갖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교육의 사회통합 기능과 언론담론 분석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책은 초기의 출입국 관리와 체류 통제 중심에서 점차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법무부 2023). 특히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통계청 2023b).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어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 교육을 넘어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선정 2011: 8).

이주민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제도 접근,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Bourdieu, 1991). 특히 한국어 능력은 노동시장 참여

와 공공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 형성 등 사회 전반의 참여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언어 역량을 넘어 제도 접근과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들은 한국어 능력이 이주민의 생활 적응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선, 정기선, 최혜지 2011).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은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김민주 202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국어교육은 직무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 정착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권숙진 2024: 124). 반면 한국어 능력 부족은 공공서비스 접근 제한, 불안한 노동시장 참여,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과 사회통합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김이선, 정기선, 최혜지 2011; 안정민 2023).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어교육은 산업현장 적응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정훈, 정상우, 이원선 2021).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주민 집단에게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교육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방식은 정책 대상 집단의 체류 목적과 사회적 위치,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생활과 자녀 양육, 지역사회 정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다른 집단의 한국어교육은 사업장 의사소통과 직무 수행,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에는 언어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책적 기대와 사회적 의미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 집단에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통합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담론적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은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의 정책과 사업, 교육 현장과 참여자를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특정한 사회적 · 정책적 맥락과 연결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교육이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각 이주민 집단에게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는지에 관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McCombs & Shaw 1972: 177; Entman 1993; Hall 1997: 15-17).

이에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나 정책의 확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담론에서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맥락으로 의미화되고 있으며 이주민 집단별로 어떠한 사회적 역할과 위치가 부여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 담론을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한국어교육이 두 집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의미로 다르게 구성되고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책적 위치와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한국 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이지만, 정책과 사회적 인식 속에서 이주민의 체류 목적과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설정되어 왔다(김혜순 2008; 이규용 2014). 결혼이민자는 가족 형성과 장기 정착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력 수급과 산업현장 운영을 위한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정책적 위치의 차이는 각 집단에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과 한국어교육의 목적에도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두 집단의 정책적 위치와 한국어교육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언론담론의 재현 양상을 해석하는 데 어떠한 배경을 제공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는 가족 형성과 장기 정착을 전제로 한국 사회에 편입되는 집단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 자녀 양육, 지역사회 정착, 가족 유지 및 사회통합 과 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김이선, 정기선, 최혜지 2011).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족구성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혜순 2008).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 수급 정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이규용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08). 관련 정책은 노동력의 도입과 배치, 사업장 관리 및 체류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이혜경 2008).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적인 지역사회 정착의 대상이라기보다 산업 생산과 노동시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위치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정책 위치의 차이는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도 반영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 한국어교육은 생활 적응, 가족 내 의사소통, 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오채선 2008; 국립국어원 2008). 최근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민주 2024),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연구도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정하라, 구영산 202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 사업장 의사소통, 직무 수행 및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반영한 교육과정 맞춤형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진욱, 이준호, 임형욱 2023; 김선정, 민경모, 강현자 2023).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는 생활과 가족, 정착과 관련된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에는 직문 수행과 노동 현장 적응을 지원하는 목적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일한 한국어교육이라 하더라도 대상 집단의 체류 목적과 정책적 위치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차이를 곧바로 언론의 재현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책은 두 집단이 어떠한 제도적 목적과 지원 체계 속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며, 언론은 이 가운데 특정 요소를 선택하고 강조하여 각 집단과 한국어교육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정책적 위치와 한국어교육의 차이는 언론담론에 나타난 집단별 사회적 역할과 재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정책적 배경이 된다.

2.3. 언론 담론과 차등적 포섭의 분석틀

언론은 사회현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특정 사회문제와 집단을 선택하고 강조하며 의미화하는 담론 생산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이주민 정책과 한국어교육과 같은 사회적 의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정한 맥락에서 해석되며, 이 과정에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미가 구성될 수 있다.

의제설정 이론(Agenda-Setting Theory)은 언론이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이 무엇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McCombs & Shaw 1972:177). 이는 언론이 사회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보도량과 시기별 변화 추이를 통해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언론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아 왔는지를 파악하는 분석 관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의제설정 이론은 본 연구에서 집단별·시기별 언론 관심의 수준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은 언론이 특정 현상의 일부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는 특정한 해석의 틀을 구성한다고 본다(Entman 1993: 52). 동일한 한국어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대상, 정책, 제도 및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보도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키워드, 키워드 간 관계 및 연관어를 분석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각각 어떠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지를 파악한다. 이에 프레이밍 이론은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언론에서 어떠한 문제와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해석하는 분석 관점으로 활용된다.

재현이론(Representation Theory)은 언론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집단과 현상에 관한 의미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주목한다(Hall 1997: 15-17). 언론은 특정 집단을 반복적으로 특정한 역할, 이미지 및 정체성과 연결함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van Dijk 1991).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어떤 키워드와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지는 각 집단에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보여주는 담론적 재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현이론은 의제설정과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확인된 담론적 특징이 각 집단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의미화하는지를 해석하는 수준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의제설정 이론은 집단별 한국어교육에 대한 언론 관심의 정도와 변화를 설명하고, 프레이밍 이론은 해당 교육이 어떠한 맥락과 관점에서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며, 재현이론은 그 과정에서 각 집단에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해석한다. 이 세 이론은 각각 언론의 관심 형성, 담론의 맥락화, 사회적 의미의 구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을 설명하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별 재현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차등적 포섭(differential inclusion)의 관점을 적용한다(Mezzadra & Neilson 2013:159-166) 차등적 포섭은 이주민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 지원 및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며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는 가족 형성과 지역사회 정착의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생산을 위한 인력으로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교육 담론에서도 생활 적응과 가족생활, 직무 수행과 산업현장 적응 등 서로 다른 목적과 의미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차등적 포섭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언론담론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구성되고, 각 집단에 어떠한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해석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에 부여되는 역할과 의미의 차이가 언론담론에서 상이한 재현 양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론담론에서 동일한 한국어교육이 이주민 집단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의미로 구성되는 과정을 ‘차등적 재현(differential representation)’으로 개념화한다. 차등적 재현은 기

존의 독립된 이론이나 이미 확립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가 재현이론과 차등적 포섭의 관점을 결합하여 제안하는 분석개념이다. 재현이론이 언론이 사회집단의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면, 차등적 포섭은 이주민 집단에 부여되는 역할과 사회적 위치가 동일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차등적 재현은 동일한 정책 영역인 한국어교육이 대상 집단의 정책적 위치와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맥락과 의미로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담론적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은 언론의 관심 수준, 담론의 구성 맥락, 집단별 사회적 의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해석의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보도량과 시기별 변화 추이를 통해 집단별 언론 관심의 수준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핵심 키워드와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문제와 맥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각 집단에 각 집단에 부여하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재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두 집단 간 재현의 차이를 차등적 포섭의 관점에서 종합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언론담론에서 상이한 역할과 의미로 구성되는 차등적 재현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3.1.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 담론의 구조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언론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특정 사회 현상이나 정책 이슈가 언론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분석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은 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이 제도화된 시기부터 최근의 정책 변화까지를 포괄함으로써,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담론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을 다룬 국내 언론기사이다. 두 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한국어교육과 직접 관련된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와 한국어교육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를 결합하여 검색식을 구성하였다. 집단명 내부와 한국어교육 관련 용어 내부에는 OR 조건을 적용하고, 집단명과 한국어교육 관련 용어 사이에는 AND 조건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과 정제 과정을 거쳐 총 3,671건을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 3,336건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 335건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범위와 검색식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자료의 수집 범위와 기준

구 분	내 용
자료원	BigKinds
분석 매체	BigKinds 제공 104개 언론사
매체 범주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방송사, 전문지, 인터넷신문 등
수집 기간	2006.01.01.~2025.12.31
분석 단위	개별 뉴스기사
분석 대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기사
검색식 1	(“결혼이민자” OR “결혼이주여성” OR “여성결혼이민자”) AND (“한국어교육” OR “한국어 교실” OR “한국어 수업” OR “한국어 프로그램”)
검색식 2	(“외국인 근로자” OR “외국인 노동자” OR “이주노동자”) AND (“한국어교육” OR “한국어 교실” OR “한국어 수업” OR “한국어 프로그램”)
검색어 선정 기준	연구 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명칭과 한국어교육 활동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를 결합
검색어 제외 기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한국어교육 활동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 비관련 기사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용어 제외
최종 기사수	결혼이민자 3,336건, 외국인 근로자 335건, 총 3,671건
분석 방법	키워드 트렌드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3.1.2. 검색어 및 자료정제

검색어는 연구 대상 집단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용어와 한국어 교육 활동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를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결혼이민자 관련 용어로는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였다. 이는 동일한 집단이 언론기사에서 서로 다른 명칭으로 지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기사의 누락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용어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정책적·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한국어교육 관련 용어로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실’, ‘한국어 수업’, ‘한국어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들 용어는 한국어교육의 운영과 참여, 지원 활동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정책과 사업 및 교육 현장을 다룬 기사를 수집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와 같이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괄하여 연구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는 단독 검색어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 ‘의사소통’, ‘사회통합’과 같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될 수 있으나 교육활동 자체를 직접 지칭하지 않는 용어도 검색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한국어교육이 기사의 중심 내용이 아닌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검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집단의 명확성과 한국어교육 활동과의 직접성을 검색어 선정의 기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집단 관련 용어와 한국어교육 관련 용어는 각각 OR 조건으로 연결하여 동일한 대상과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을 포괄하였으며, 두 범주 사이에는 AND 조건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 집단과 한국어교육이 함께 나타나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기사의 누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의 유입을 줄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함께 검토하여 분석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정책과 사업,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 운영 실태, 참여 경험 및 교육 성

과를 주요하게 다룬 기사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반면 검색어가 기사에 단순히 등장하는 데 그치거나 한국어교육이 기사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사에서 다루는 대상이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교육 일정과 장소, 모집 방법 등 행사 정보만을 제공하는 안내성 기사와 사진 설명이나 기관 소개에서 한국어교육이 부수적으로 언급된 기사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복 여부는 기사 제목과 본문, 보도 시점 및 핵심 내용의 일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동일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문장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반복 게재된 경우에는 대표 기사 한 건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제외하였다. 다만 동일한 사건이나 정책을 다루더라도 기사별로 새로운 정보나 해석, 인터뷰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별개의 기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한 반복 게재와 내용상 독립성을 지닌 기사를 구분하였다.

자료정제 과정에서는 최초 검색 건수와 정제 단계별 제외 건수를 집단별로 기록하였다. 최초 검색된 기사 가운데 중복기사, 단순 안내성 기사, 한국어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지 않은 기사 및 연구 대상 집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사를 제외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 3,336건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 335건 등 총 3,671건을 최종 분석자료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BigKinds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포함된 단어 가운데 언론사명과 기사명, ‘기자’, ‘뉴스’, ‘이날’, ‘밝혔다’, ‘관계자’ 등 기사 작성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연구문제의 해석에 기여하기 어려운 표현은 분석 제외어로 처리하였다. 반면 연구 대상 집단과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 교육내용 및 사회적 맥락을 나타내는 핵심어는 분석에 유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제외 기준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자료 및 전체 분석 시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제외어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개념이 표기 방식의 차이로 분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유사어와 이형태를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통합하였으며, ‘한국어 교실’, ‘한국어 수업’, ‘한국어 강좌’는 한국어교육 관련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용어 통합 기준 역시 두 집단과 전체 분석 시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2. 연구설계

3.2.1. 시기구분 기준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분석 기간을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책 변화와 한국어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2006~2010년은 ‘이주민 한국어교육 제도화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제정을 통해 이주민 지원정책과 한국어교육 지원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 2011~2015년은 ‘사회통합 중심 한국어교육 확산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사회통합 정책이 확대되면서 한국어교육이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셋째, 2016~2020년은 ‘사회통합·체류관리 병존기’로 설정하였다.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 관리와 체류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회통합과 체류관리 담론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이다.

넷째, 2021~2025년은 ‘이주민 정책 다변화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력 확대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 논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단순히 분석 기간을 동일한 간격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주민 정책과 한국어교육 정책의 주요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언론 보도의 변화와 집

단별 한국어교육 담론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3.2.2. 분석 틀과 비교기준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언론담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의미화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의제설정 이론(McCombs & Shaw 1972: 177), 프레이밍 이론(Entman 1993: 52), 재현이론(Hall 1997: 15-17)을 적용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담론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차등적 포섭(differential inclusion)의 관점을 활용하였다(Mezzadra & Neilson 2013: 159-166).

의제설정 이론은 집단별·시기별 기사 수와 보도량의 변화 추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언론 관심의 수준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프레이밍 이론은 주요 키워드와 키워드 간 연결관계, 연관어에 나타난 선택과 강조의 양상을 바탕으로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문제와 맥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였다. 재현이론은 이러한 담론 구조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떠한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하는지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적용하였다. 차등적 포섭은 두 집단에 부여되는 역할과 의미의 차이를 비교하고, 동일한 한국어교육이 집단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종합하는 데 활용하였다.

두 집단의 기사 수는 결혼이민자 3,336건, 외국인 근로자 335건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사량의 차이를 집단별 한국어교육에 대한 언론 관심의 수준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로 보아 보도량 분석에서는 절대 기사 수를 유지하였다. 다만 자료 규모의 차이가 키워드 빈도와 의미구조 비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도와 연관어 분석에서는 두 집단의 절대 빈도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 집단 내부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의 상대적 순위와 연결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두 집단과 각 시기에 동일한 분석 조건을 적용하여 담론 구조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사량의 차이와 담론 구성의 차이를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기사 수와 시기별 변화는 언론 관심의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키워드 관계와 연관어의 구성은 각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맥락에서 의미화되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3.3. 분석 방법

3.3.1. 분석 도구 및 분석절차

본 연구는 BigKinds의 뉴스검색 기능을 통해 분석자료를 수집하고, 키워드 트렌드,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집단별·시기별 언론담론의 변화와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트렌드 분석에서는 집단별·시기별 기사 수와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으며, 관계도 분석에서는 기사에 함께 등장한 주요 키워드의 공출현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BigKinds가 제공하는 관련도 순위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한국어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요 단어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자료수집과 정제, 시기 구분, 보도량 분석,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집단 간 비교 및 해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자료정제 기준에 따라 최종 분석자료를 확정하였다. 이후 분석기간을 네 시기로 구분하고 집단별 기사 수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도와 연관어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함께 제시되는 주요 개념과 연결구조를 파악하였다.

각 분석 결과는 먼저 집단 내부의 시기별 변화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3.3.2. 키워드 트렌드 분석

키워드 트렌드 분석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기사 수와 시기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집단별 전체 기사 수와 각 시기의 기사 수를 산출하여 한국어교육에 대한 언론관심의 수준과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의 기사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보도량은 절대 기사 수로 제시하되, 시기별 변화는 각 집단 내부의 증감 추

이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사량이 많은 집단의 빈도가 모든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줄이고, 각 집단의 담론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3.3.3. 관계도 분석

관계도 분석은 BigKinds에서 제공하는 주요 키워드 간 공출현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담론의 연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관계도에서 주요 키워드는 분석의 구성 요소를, 키워드 간 연결은 동일 기사에서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한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과 함께 나타나는 정책, 제도, 대상 및 사회적 이슈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과 각 시기에는 동일한 분석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키워드의 절대 출현 빈도를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 집단의 관계도에서 중심으로 나타나는 키워드와 연결 양상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관계도 분석 결과는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문제와 정책적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모든 관계도에서 분석의 기준어로 고정되어 제시되므로 결과 해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주요 공출현어는 교육·지원, 가족·자녀, 노동·고용, 출신국가, 정책·행정 및 지역 등의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관계도의 외형적 규모보다는 집단별·시기별 공출현어의 구성과 의미 영역 간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3.3.4.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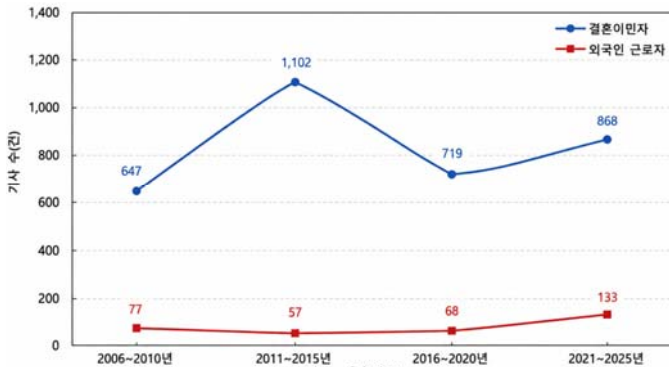
연관어 분석은 BigKinds가 제공하는 관련도 순위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두 집단과 각 시기별로 관련도 순위 상위 10개의 연관어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분석 조건을 일치시켰다. 의미 해석은 개별 연관어 하나에 근거하지 않고, 동일 시기의 상위 연관어 가운데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복수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의미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관계도 분석 결과와 해당 연관

어가 제시된 기사 맥락을 함께 검토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사회적·정책적 맥락에서 구성되는지를 비교하고, 집단별로 부여되는 역할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전체 보도량 변화와 집단별 언론 가시성

4.1.1. 전체 보도량과 집단별 차이



〈그림 1〉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언론 보도 추이(2006~2025)

본 연구는 BigKinds가 제공하는 104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보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총 3,671건으로,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는 3,336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는 335건으로 집계되었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보다 약 10배 많았으며, 이는 동일한 한국어교육 영역에서도 두 집단이 언론에서 가시화된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2006~2010년 647건(19.4%), 2011~2015년 1,102건(33.0%), 2016~2020년 719건(21.6%), 2021~2025년 868건(26.0%)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의 약 3분의 1이 2011~2015년에 집중되었으며,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도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도량이 유지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는 2006~2010년 77건(23.0%), 2011~2015년 57건(17.0%), 2016~2020년 68건(20.3%), 2021~2025년 133건(39.7%)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보도량은 모든 시기에서 결혼이민자보다 적었으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의 39.7%가 2021~2025년에 집중되어 최근 시기에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는 전체 보도량뿐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시점과 지속성에서도 확인되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2011~2015년에 가장 높은 보도량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장기간 낮은 가시성을 유지하다가 2021~2025년에 보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은 언론에서 주목받은 정도, 관심이 집중된 시기 및 관심의 지속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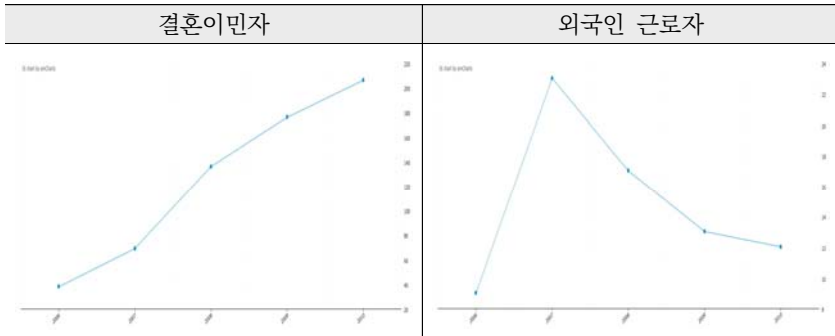
다만 보도량만으로 각 집단의 한국어교육에 부여된 구체적인 역할과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 보도량 분석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집단별 언론 가시성의 수준과 시기적 차이이며, 이러한 가시성의 차이가 어떠한 의미 구성과 결합하는지는 관계도와 연관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4.1.2. 시기별 보도 변화와 관련 정책의 전개

1) 한국어교육 제도화기(2006~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제도화 초기인 2006~201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보도에서 상반된 변화가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10년에 해당 시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는 2007년 증가한 이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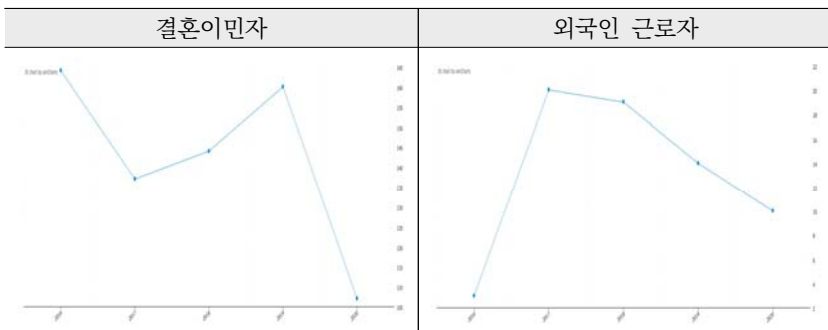
〈표 2〉 한국어교육 제도화기(2006~2010)의 키워드 출현 빈도



이 시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 지원체계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대응한다(법무부 2008; 여성가족부 2010). 결혼이민자 대상 지원체계가 형성된 시기와 관련 보도의 증가 시점이 일치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는 일시적인 증가 이후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주민 한국어교육이 제도화되는 초기 단계부터 두 집단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사회통합 중심 한국어교육 확산기(2011~2015)

〈표 3〉 사회통합 중심 확산기(2011~2015)의 키워드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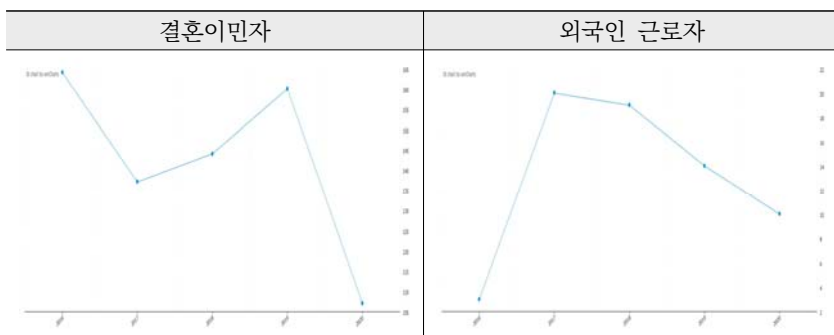
2011~2015년은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가 전체 분석기간 중 가장 많이 집중된 시기이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연도별 증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의 33.0%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 시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사회통합정책이 확대되고, 한국어교육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운영된 시기와 맞물린다(법무부 2013; 황정미 2012). 반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는 201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이 시기의 기사 비중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의 17.0%로 네 시기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사회통합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확대된 시기에도 언론의 관심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시기와 언론 보도가 증가한 시점이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3) 사회통합 · 체류관리 병존기(2016~2020)

〈표 4〉 사회통합 · 체류관리 병행기(2016~2020)의 키워드 출현 빈도



2016~202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 모두 연도별 변동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2017년 감소한 후 2018년과 2019년에 다시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크게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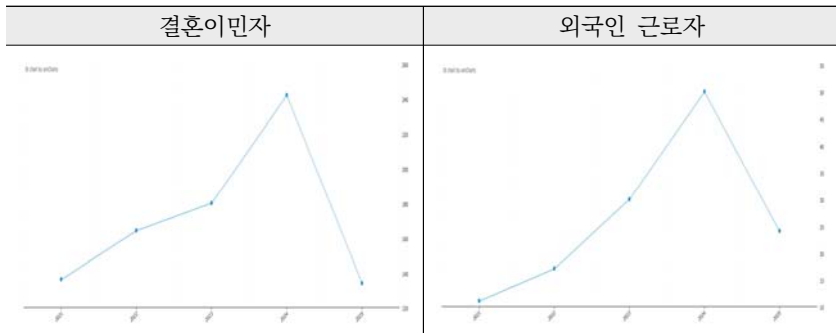
2017년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이 시기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는 719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는 68건으로 집계되었다. 사회통합정책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체류관리 정책이 함께 전개된 시기였으나, 한국어교육 관련 보도의 가시성은 여전히 결혼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두 집단 모두 보도량의 변동을 보였지만,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집단 간 가시성의 차이가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의 확대가 언론 관심의 균등한 확대로 곧바로 이어진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4) 이주민 정책 다변화기(2021~2025)

〈표 5〉 이주민 정책 다변화기(2021~2025)의 키워드 출현 빈도



2021~2025년에는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 관련 보도가 모두 증가하여 2024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2025년에 감소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의 증가 폭이 이전 시기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868건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의 26.0%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는 133건으로 절대적인 기사 수는 여전히 적었으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의 39.7%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주거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추진한 시기와 맞물린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의 증가는 외국인력 수요와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된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가 증가했음에도 두 집단 간 전체 보도량의 격차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는 두 집단에 대한 언론 관심이 균등해진 결과라기보다, 결혼이민자 중심의 기존 가시성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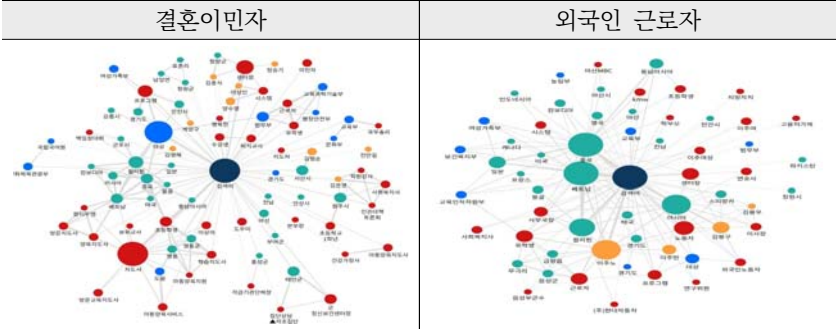
시기별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제도화 초기부터 지속적인 언론 의제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시성을 유지하다가 최근 시기에 보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두 집단의 보도 변화는 관련 정책이 전개된 시기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시기적 관련성만으로 정책 변화가 보도량 증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2. 관계도 분석 결과: 시기별 주요 공출현어의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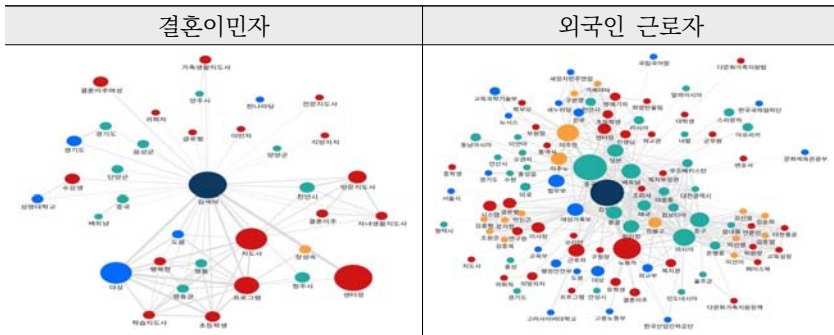
관계도 분석에서는 검색어가 모든 관계도의 기준으로 고정되어 제시되므로 결과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관계도의 시각적 위치와 외형적 크기만으로 특정 키워드의 구조적 중심성이나 관계망의 확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관계도에 실제로 제시된 주요 공출현어를 교육·지원, 가족·자녀, 노동·고용, 출신국가, 정책·행정 및 지역 등의 의미 영역으로 구분하고, 두 집단과 네 시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출현어의 구성과 의미 영역 간 결합 양상을 비교하였다.

4.2.1. 이주민 한국어교육 제도화기(2006~2010)

결혼이민자 관계도에서는 ‘지도사’, ‘방문지도사’, ‘학습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자녀생활지도사’, ‘프로그램’, ‘센터장’ 등 교육지원 인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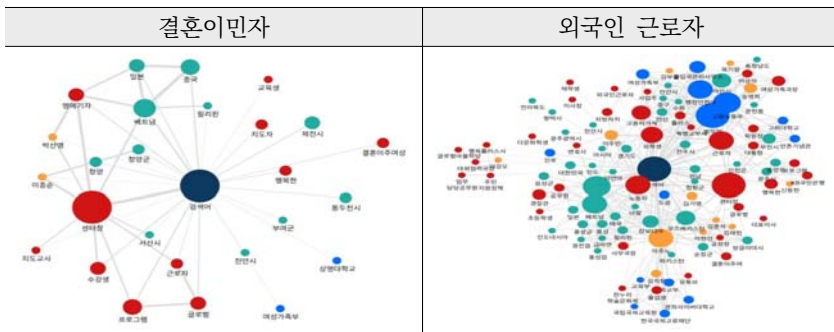


등학생’과 ‘결혼이주’ 등의 키워드도 나타나,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가족 지원기관과 방문교육 인력을 매개로 가족생활 및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체계와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사회통합 중심 확산기(2011~2015)의 관계도 분석

외국인 근로자 관계도에서는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출신국가 관련 키워드와 ‘근로자’, ‘노동자’ 등의 노동집단 명칭이 함께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행정기관 관련 키워드가 제시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이 출신국가와 노동 영역뿐 아니라 고용 및 이주민 행정의 맥락과 함께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사회통합·체류관리 병행기(2016~2020)의 관계도 분석

결혼이민자 관계도에서는 ‘센터장’, ‘프로그램’, ‘수강생’, ‘지도교사’, ‘교육생’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와 참여자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함께 제시되었다.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의 국가명과 청양군, 제천시, 서산시 등 지역 관련 키워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계도에서는 ‘근로자’, ‘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 ‘고용노동부’ 등 노동·고용 관련 키워드가 함께 제시되었다. 또 한 다양한 출신국가와 지역명, 대학 및 정부기관 관련 키워드가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관계도에서는 ‘센터장’, ‘수강생’, ‘교육생’, ‘선생님’ 등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와 참여자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함께 제시되었다. ‘충주시’, ‘태안군’, ‘부여군’, ‘법무부’ 등 지역·행정 관련 키워드와 ‘코로나19’도 확인되었다.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와 참여자 관련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및 행정 관련 키워드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지역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참여의 맥락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계도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노동·고용 관련 키워드가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중앙 및 지역 행정기관과 여러 출신국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집단 관련 키워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노동시장과 고용행정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중앙 및 지역 행정기관, 다양한 이주집단과 함께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결혼이민자 관련 담론은 지역 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담론은 노동·고용 및 정책·행정 영역과의 결합이 지속되는 차이를 보였다.

4.2.2. 시기별 공출현어 구성의 종합

시기별 관계도 분석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초기의 방문교육과 가족·자녀 지원에서 지역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참여로 이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2006~2015년에는 방문지도사, 양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및 자녀생활지도사 등 교육 전달 인력이 주요하게 나타났고, 2016년 이후에는 센터장, 수강생, 교육생 및 선생님 등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와 참여자 관련 키워드가 나타났다.

시기별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달 인력, 지원기관, 가족·자녀 및 교육 참여자와의 결합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이 교육지원과 가족·자녀 지원 및 지역 단위 프로그램 운영의 맥락에서 구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초기부터 출신국가와 노동자 집단 명칭이 함께 나타났으며, 고용허가제, 노동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및 지역 행정기관 등 노동·고용과 정책·행정 관련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지역 행정기관과 다양한 이주집단 관련 키워드도 나타났다. 노동·고용 및 정책·행정 영역과의 결합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되었다.

따라서 관계도 분석에서 확인된 집단 간 차이는 관계도의 외형적 규모나 특정 단어의 시각적 위치가 아니라, 한국어교육과 함께 제시된 주요 공출현어의 구성에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교육 전달체계, 가족·자녀 지원 및 지역 교육기관과 결합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출신국가, 노동집단, 고용제도 및 정책·행정기관과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하였다.

4.3. 연관어 분석 결과: 시기별 의미 구성의 변화

연관어 분석에서는 BigKinds가 제공하는 관련도 순위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단어를 검토하였다. 의미 해석은 개별 연관어 하나에 근거하지 않고, 동일 시기의 주요 연관어 가운데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이 복수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의미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자녀 지원, 교육지원, 생활 적응·정착, 노동·고용, 체류·행정 및 지역사회 지원 등의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두 집단과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국어교육 제도화기인 2006~2010년에는 결혼이민자 관련 연관어로는 ‘다문화가정’, ‘센터장’, ‘한국어교육’, ‘상담’, ‘교육’,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모교육’, ‘가정통합지원’, ‘아동양육’, ‘보육’, ‘문화체험’, ‘이중언어’ 등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에 관련된 연관어가 확인되었다.

〈표 6〉 한국어교육 제도화기(2006~2010)의 연관어 분석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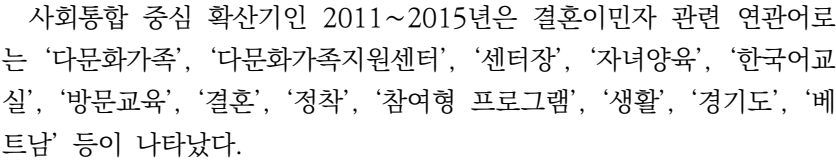
‘부모교육’, ‘아동양육’, ‘보육’, ‘가정통합지원’은 가족·자녀 지원의 의미를 구성하고, ‘상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지원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가족·자녀와 지원기관에 관련된 연관어가 복수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영역과 함께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관어에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등 다문화가족 관련 단어가 나타났다. 또한 ‘상호이해’, ‘봉사’, ‘상담사’, ‘기업체’, ‘무료통화’, ‘전자거래정보지원’, ‘베트남’, ‘필리핀’, ‘소외계층’ 등이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정과 미취학 아동, 봉사, 상담사 및 소외계층 등 다문화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단어가 나타났으나, 노동과 고용을 직접 나타내는 연관어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독립적인 노동·고용 의제로 구성되기보다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과 서비스 제공의 맥락에 포함되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화 초기에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이 가족·자녀 및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된 구체적인 지원 영역으로 구성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일반적인 다문화 지원담론 안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관어에서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도입국자녀’, ‘자녀들’,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다문화사회’ 등이 나타났다.

에 포함되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과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구체화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고용 및 체류행정과 결합한 제도적 지원의 성격을 나타냈다.

[illegible]

‘청양가족센터’, ‘가족생활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가족 지원 체계와 운영 주체를 나타내고, ‘TOPIK’,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어 학습과 교육지원에 관련된 의미를 구성한다. 가족지원기관 관련 연관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어 능력 평가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연관어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은 가족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과 자녀교육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여건’,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안정적 지역 정착’은 지역사회

생활과 정착에 관련된 의미를 구성하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해시’, ‘광주시’는 지역과 지원기관의 역할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다문화정책’이 나타나 노동·고용정책과 지역사회 지원의 의미가 함께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능력과 자녀교육을 포함한 교육지원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노동·고용정책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결합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4.3.1. 시기별 연관어 구성의 종합

시기별 연관어를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과 자녀, 생활 적응 및 교육지원에 관련된 연관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부모교육, 아동양육, 보육 및 가정통합지원 등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관련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후에는 의사소통,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관련 의미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중도입국자녀, TOPIK, 한국어교육 및 자녀교육 등 교육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초기에는 다문화가족과 지원서비스 관련 연관어가 주로 나타나 독자적인 의미 구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2016년 이후에는 고용허가, 체류허가, 행정안전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고용·체류행정 관련 의미가 나타났다. 2021년 이후에는 외국인주민, 정주여건 및 지역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관련된 의미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을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일관된 노동 중심 담론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에서 고용·체류행정,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의미가 분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분석결과에 부합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자녀 지원을 기반으로 생활 적응과 교육지원의 기능이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한국어교육 담론의 차등적 재현 구조

앞선 보도량,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언론 가시성, 한국어교육과 결합한 의미 영역 및 시기별 변화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차등적 재현은 동일한 한국어교육이 대상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으로 가시화되고, 서로 다른 사회적·제도적 맥락과 결합하여 제시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차등적 재현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4.4.1. 언론 가시성의 비대칭성

두 집단의 차등적 재현은 먼저 보도량에서 확인되었다. 전체 분석기사 3,671건 가운데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는 3,336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는 335건으로 약 10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도량을 유지하다가 2021~2025년에 증가하였다.

보도 집중 시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는 2011~2015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는 2021~2025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은 언론에서 주목받은 정도뿐 아니라 관심이 집중된 시점과 지속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언론 의제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시화되는가 자체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대상으로 제시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가시화되다가 최근에 이르러 관심이 확대되었다.

4.4.2. 한국어교육과 결합한 의미 구성의 차이

차등적 재현은 한국어교육과 함께 제시된 주요 공출현어와 연관어의

구성에서도 확인되었다. 결혼이민자 관계도에서는 방문지도사, 양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자녀생활지도사, 프로그램, 센터장, 수강생 및 교육생 등 교육 전달 인력과 운영 주체 및 참여자 관련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분석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아동양육, 자녀양육, 중도입국자녀, 자녀교육, 의사소통,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과 자녀의 생활·교육, 한국생활 적응 및 지역 지원기관의 교육서비스와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제시되었다. 시기별로 강조되는 단어는 달라졌지만, 가족·자녀 지원과 생활 적응 및 교육지원의 결합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계도에서는 근로자, 노동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노동·고용 및 정책·행정 관련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초기에는 다문화가족과 일반적인 지원서비스 관련 단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나, 2016년 이후에는 고용허가, 체류허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고용·체류행정 관련 단어가 나타났다. 2021년 이후에는 정주여건, 외국인주민 및 지역 지원기관 관련 단어가 함께 확인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자녀 지원, 생활 적응 및 교육지원의 영역과 지속적으로 결합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 노동·고용, 체류행정 및 지역사회 정착의 영역과 시기별로 결합하는 차이를 보였다.

4.4.3. 시기별 변화 경로의 차이

결혼이민자 관련 담론은 초기의 방문교육과 가족·자녀 지원에서 지역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TOPIK, 중도입국자녀 및 자녀교육 등 교육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부모교육, 아동양육 및 보육 등 가족생활 지원이 주요하게 제시되었고, 이후에는 의사소통,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국어 능력과 자녀교육 관련 의미가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별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교육 전달 인력, 가족지원기관, 가족과 자녀 및 한국생활 적응과 지속적으로 결합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가족·자녀 지원을 기반으로 생활 적응과 교육지원의 기능이 구체화되는 경로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담론은 초기 관계도에서 출신국가, 노동자 집단 및 고용제도 관련 키워드가 나타났지만, 연관어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포괄적인 지원서비스 관련 단어가 두드러졌다. 이는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노동·고용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의미영역으로 충분히 분화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준다.

2016년 이후에는 관계도와 연관어 모두에서 노동·고용 및 체류·행정 관련 단어가 나타났으며, 2021년 이후에는 노동·고용 관련 의미와 함께 외국인주민, 정주여건 및 지역 지원기관 관련 의미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초기의 포괄적인 다문화지원에서 고용·체류행정,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의미가 분화되는 경로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차등적 재현은 집단별 언론 가시성의 비대칭성, 한국어교육과 결합한 의미 구성의 차이, 시기별 변화 경로의 차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BigKinds에 수록된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언론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는지, 어떠한 주요 공출현어와 연관어를 통해 의미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재현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 제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언론 가시성의 수준과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기사 3,671건

가운데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는 3,336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는 335건으로,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가 약 10배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며, 특히 2011~2015년에 가장 높은 보도량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시성을 유지하다가 2021~2025년에 보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이 언론에서 다루어진 정도뿐 아니라 관심이 형성되고 지속된 시점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도 변화는 관련 정책이 전개된 시기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혼이민자 관련 보도가 집중된 시기는 다문화가족 지원체제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이 제도화·확대된 시기와 맞물렸으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가 증가한 최근 시기는 외국인력과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된 시기와 연결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정책 변화가 보도량에 미친 영향을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정책의 시행이 관련 보도의 증감을 직접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이주민 한국어교육에 관한 언론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은 관계도에 나타난 주요 공출현어와 관련도 상위 연관어의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자녀 지원, 교육지원 인력과 기관, 한국생활 적응 및 지역단위의 교육지원과 지속적으로 결합하였다. 초기에는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지원의 의미가 두드러졌고, 이후에는 의사소통과 한국생활 적응의 의미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과 자녀교육에 관한 의미가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자녀 지원을 기반으로 생활 적응과 교육지원의 기능이 점차 구체화되는 변화 경로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초기에는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의 맥락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노동·고용 및 체류행정 관련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외국인주민, 정주여건, 지역 지원기관 및 지역명과 관련된 연관어가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생활과 정착에 관한 의

미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담론을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일관된 노동 중심 담론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에서 고용·체류행정으로, 다시 지역사회 생활과 정착 지원으로 의미가 변화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정책적·제도적 영역에 위치해 온 점과 관련된다. 결혼이민자는 주로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정책과 체류관리 체계의 대상으로 위치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위치의 차이는 한국어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는 언론담론에도 반영되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생활, 자녀교육 및 한국생활 적응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노동 수행, 고용·체류관리 및 최근의 지역사회 정착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정책이 가족 단위의 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대체로 일치한다(황정미 2012). 다만 기존 연구가 주로 다문화가족정책과 지원제도의 가족 중심적 특성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지향이 한국어교육에 관한 언론담론에서도 가족·자녀 및 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담론에서는 고용·체류행정 관련 의미가 구체화되는 한편, 최근에는 지역사회 정착 관련 의미가 함께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이 노동 현장의 적응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박진옥, 이준호, 임형욱; 2023).

셋째, 두 집단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언론 가시성, 의미 구성 및 시기별 변화 경로에서 차등적으로 재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차등적 재현’은 동일한 한국어교육이 대상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으로 가시화되고, 서로 다른 사회적·제도적 맥락과 결합하여 상이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는 담론적 양상을 의미한다. 이는 보도량의 차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과 함께 제시되는 주요 공출현어와 연관어의 구성,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시기별로 변화하는 경로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분석개념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가족·자녀 지원과 한국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미화된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노동·고용과 체류행정, 최근에는 지역사회 생활과 정착의 의미와 결합하였다. 이는 언론담론이 두 집단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집단에 기대되는 역할과 위치를 선택적으로 가시화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담론이 사회적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의미를 구성한다는 재현이론의 관점과 연결된다(Hall 1997: 15-17).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별 의미 구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화된 사회통합(Familialized Integration)’과 ‘기능화된 사회통합(Functionalized Integration)’이라는 잠정적 분석개념을 제안하였다. 두 개념은 기존에 확립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각 집단의 정책적·제도적 위치를 연결하여 구성한 개념이다.

가족화된 사회통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의 필요성이 독립된 개인의 역량 개발보다 가족관계의 유지, 자녀양육과 교육 및 한국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의미화되는 담론적 경향을 가리킨다. 결혼이민자 담론에서 가족·자녀·양육·지원기관 및 생활 적응 관련 의미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 개념의 도출 근거가 되었다.

기능화된 사회통합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과 사회적 수용이 노동 수행, 고용·체류관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둘러싼 제도적·기능적 필요를 중심으로 의미화되는 담론적 경향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 담론에서 노동자 집단, 고용제도와 체류행정 및 최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의미가 나타난 결과가 이 개념의 도출 근거가 되었다. 다만 기능화된 사회통합은 외국인 근로자의 담론이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노동 중심 구조를 유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포괄적인 다문화 지원에서 고용·체류행정으로, 다시 지역사회 정착으로 강조점이 변화한 과정까지 포함한다.

가족화된 사회통합과 기능화된 사회통합은 두 집단의 모든 특성과 경험을 포괄하는 고정된 유형이나 일반이론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에게도

직업, 교육,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의미가 존재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게도 가족생활, 지역사회 관계 및 사회참여의 의미가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개념은 분석대상 언론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된 역할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 분석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두 집단이 언론에서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의미화된 차등적 재현이다. 반면 차등적 포섭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한 이론적 해석틀이다. 차등적 포섭은 이주민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동등하게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편입되는 현상을 설명한다(Mezzadra & Neilson 2013: 159-166).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언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참여 방식은 동일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는 가족의 안정, 자녀교육 및 한국생활 적응의 주체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시화되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 수행과 고용·체류관리 및 최근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주체로 제시되었다. 이는 분석대상 언론담론에서 확인된 차등적 재현이 차등적 포섭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차등적 포섭을 직접 측정하거나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아니다. 차등적 포섭은 집단별 언론 가시성과 의미 구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적용한 해석틀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사회의 차등적 포섭 구조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언론담론에서 확인된 역할 구성의 차이를 실제 정책 효과,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 또는 당사자의 경험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본 연구의 해석은 분석대상 언론담론에서 나타난 상대적인 경향에 한정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한국어교육을 교수·학습 내용이나 교육사업의 운영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이주민 집단의 역할과 위치가 구성되는 담론적 과정으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장기간의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언론 가시성, 주요 공출현어와 연관어의 구성 및 시기별 변화 경로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한국어교육이 대상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등적 재현을 언론 가시성의 비대칭성, 한국어교육과 결합한 의미 구성의 차이, 시기별 변화 경로의 차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가족화된 사회통합과 기능화된 사회통합이라는 잠정적 분석개념을 통해 한국어교육 담론에서 집단별로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구성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의는 새로운 일반이론을 확립하였다는 데 있기보다, 한국어교육 담론과 이주민의 사회적 위치 및 정책적 범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접근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을 집단별로 고정된 역할에 한정하여 구성하는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을 가족생활과 자녀교육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교육·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근 언론담론에서 지역사회 생활과 정착 관련 의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교육을 사업장 의사소통과 고용·체류 안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 수행의 주체로만 전제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본 연구가 한국어교육 정책의 효과나 교육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평가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니다. 언론담론에서 확인된 집단별 역할 구성과 의미의 차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방향적 시사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당사자의 학습 요구와 경험,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교사 및 정책담당자의 관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먼저 분석자료가 BigKinds에 수록된 언론보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한국 사회 전체의 인식이나 실제 이주민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언론담론은 이주민의 역할과 의미가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장이지만,

실제 국민 인식, 정책 집행의 효과 및 이주민 당사자의 경험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 관련 기사 3,336건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 335건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별 언론 가시성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인 동시에, 두 집단의 담론적 다양성과 세부적인 변화 양상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당 담론 내부의 다양한 주제와 의미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도와 연관어 분석은 BigKinds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관계도에 제시된 주요 공출현어의 구성과 관련도 상위 연관어의 의미 변화를 비교하는 데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 단어의 네트워크 중심성, 단어 간 연결 강도 및 관계망의 밀도를 별도의 정량적 지표를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정책의 전개와 보도 변화가 나타난 시기적 관련성은 살펴보았으나, 정책 변화가 언론보도와 담론 구성에 미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대상 범위의 한계가 있다. 유학생, 난민, 재외동포, 전문인력 및 영주권자 등 다른 이주민 집단의 한국어교육 담론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등적 재현, 가족화된 사회통합 및 기능화된 사회통합은 특정 자료와 대상 집단을 통해 구성한 분석개념이므로, 다른 이주민 집단과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사 원문을 활용한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 및 프레임 분석을 통해 집단별 담론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언론자료뿐 아니라 정책문서, 한국어교육과정, 교재, 교육 현장 자료 및 이주민 당사자 인터뷰를 함께 활용하여 언론담론과 실제 정책 및 교육 경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차등적 재현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개념의 적용 가능성과 설명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숙진(2024). 국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평생교육 현황 분석 연구, 〈교육과 학습: Global Creative Leader〉 14(4), 101-130쪽.
- 김민주(2024).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대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연구〉 40(4), 465-475쪽.
- 김선정(2011). 다문화사회와 한국어교육의 과제, 〈한국어교육〉 22(1), 1-24쪽.
- 김선정(2018).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4), 33-54쪽.
- 김선정 · 민경모 · 강현자(202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6), 233-251쪽.
- 김이선 · 정기선 · 최혜지(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적, 〈한국사회학〉 42(2), 36-71쪽.
- 박진옥 · 이준호 · 임형옥(2023).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34(4), 95-132쪽.
- 안정민(2023). 말레이시아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남아 연구〉 33(1), 105-138쪽.
- 오채선(2008).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생활 초기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10(2), 87-106쪽.
- 이미혜(2008). 국내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9(4), 1-28쪽.
- 이혜경(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104-137쪽.
- 정하라 · 구영산(2023).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국어교육〉 180, 189-232쪽.
- 정훈 · 정상우 · 이원선(20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449-473쪽.
- 황정미(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모성 담론의 재구성 과 어머니의 시민권에 관한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51(2), 103-142쪽.
- 국립국어원(2008).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자료집, 국립국어원.
- 국회예산정책처(2008). 외국인력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
- 법무부(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 법무부(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 법무부(2024). 202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4).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 이규용(2014). 고용허가제 10주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2023a). 이민자 체류 및 고용조사, 통계청.
- 통계청(2023b). 이민자 체류 및 인구동향 통계, 통계청.
- 한국산업인력공단(2024). EPS-TOPIK 및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사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Bourdieu, P.(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Harvard University Press.
- Entman, R. M.(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51-58.
- Hall, S.(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 McCombs, M. E., & Shaw, D. L.(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pp.176-187.
- Mezzadra, S., & Neilson, B.(2013). Border as Method, or, the Multiplication of Labor, Duk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A.(1991). Racism and the Press, Routledge.

필자소개

성 명 목은영
소 속 국립군산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전 자 우 편 amabile114@naver.com

성 명 박시균
소 속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다문화학과 교수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전 자 우 편 seegyoon@kunsan.ac.kr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Differential Representation in Media Discours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 A Comparison of Media Discourse on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

Mok, Eun-young · Park, See-gyun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how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are represented in media discours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structure of differential inclusion embedded in Korean society's reception of immigrants. To this end, 3,671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6 and 2025 were collected from BigKinds, and keyword trend analysis, network analysis, and related-word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discours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was primarily represented within a family- and settlement-oriented framework, center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nd home-visit education. In contrast, discours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was characterized by a labor- and job-performance-oriented framework, focusing on migrant labo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industrial workplac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media discours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structured in ways that assign different social roles and positions to different immigrant groups.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BigKinds, differential inclusion

투고일 2026. 06. 26 / 심사일 2026. 07. 15 / 게재확정일 2026. 07. 25